

오리사육업 등록대상 가축에 포함 -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대상에 오리업이 추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축산발전기금의 용자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용자취급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월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제11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 등록대상 범위를 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을 등록대상 가축으로 포함하여 오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법에서 규정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시군에 등록토록 개정됐다.(관련 조문 다음호 참조)

또 제14조 기금의 용자의 경우 농림부 장관은 축산발전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하도록 개정되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용자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오리사육업이 등록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각각 오리 또는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축산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의 변경신고만으로 사육이 가능토록 제24조를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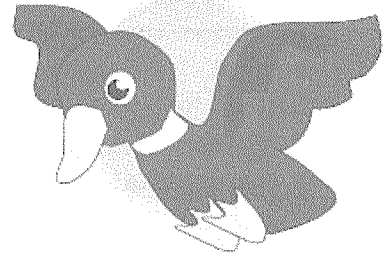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축사시설 90평 이상을 소유하고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시설 장비등을 갖추어 오는 2005년까지 반드시 해당시군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회 경고 2회 영업의 일부정지 15일, 3회 영업의 일부정지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03년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부는 닭 오리농가에 1년거치 1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상환기간이 연장된 대상자금은 03년



경영안정자금,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오리도축장가공장 운영 활성화자금으로 대상금액은 03년 경영안정자금 132억5천5백만원,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오리도축장가공장 운영활성화자금 1백73억8천만원등 총 306억3천5백만원이다.

이로써 지난해 오리사육농가 및 도축장, 가공장에서 1년상환조건으로 이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대출기간이 1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내년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농림부의 상환기간 연장은 04년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닭, 오리농가에 지원된 자금과의 형평성 유지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정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특별방역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 10월19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 주재로 각시도 농정국장 및 관련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대책 협의회를 열어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특별 방역 강화대책은 국경검역 강화 대책으로 태국, 중국 등 발생지역산 열처리된 가금육의 수입건별 전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국 농장 및 가축시장 방문자제 및 애완조류 및 닭고기등 반입하지 않도록 기내방송, 리후렛 배포를 통한 적극홍보가 추진된다.

국내 방역 강화 대책으로는 발생지역 21개 시군 취약지역에 대한 1일2회 예찰 및 소독강화등 발생지역의 특별관리 및 농장 예찰이 강화되고 오리농장, 도축장등 2만건에 대한 혈청검사 및 분변검사, 철새도래지 25개 지역에 대한 분변검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고병원성 H5N1 백신개발기술을 확보하여 5개 백신제조업체에 기술전수에 의한 대량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간이진단키트 5천2백80수분에 대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공급하여 병성감정에 이용된다.

관련부처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 수립 및 질병관리본부 주관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월1회이상 개최와 국가안전보장

회의(NSC)에서 국가 위기관리대상 질병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각 시도 및 시군별 조류인플루엔자지역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가동된다.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면서 농림부는 이 질병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도축장은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가축운반차량 하차전 후 임상관찰 강화 및 차량 계류장 도축시설에 대한 소독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해당 부화장은 일회용 나좌 재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난좌는 반드시

소독후 재사용토록 당부했다.

또 사육농장은 운반차량에 대한 농장 출입시 내외부 차체를 반드시 소독하고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덧신 착용후 출입하고 농장 밖으로 나갈때는 출입구에서 사용한 방역복등을 벗고 소각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하고 그물막 설치, 비닐포장, 생석회 도포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일본 오리고기 수출 활기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6개월이 지나 국제수역사무국(OIE)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대 일본 오리고기 수출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취한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 10월 13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일 오리고기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측바이어 상담이 속속 이뤄지고 있고 모란식품을 선두로 공영농산, 화인코리아, 코리아더카드 등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오는 11월 중순 내외에서 선적을 목표로 수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본회는 지난 10월 19일 수출가능업체를 중심으로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수출물량 확대를 통한 업계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적정 가격 수출에 의한 수출업체 경영극대화를 위해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이날 수출대책 회의 참석자들은 부위별 수출가격이 냉장육의 경우 가슴살 기

준 1천엔선, 냉동육의 가격은 9백엔선을 수출기준가격으로 제시했다.

한편 일본 측 수입업체 바이어를 상담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일본 측 바이어들은 대만의 수입가격 5백50엔을 제시하며 국내산 수입가격을 02년도 수입가격인 750엔 내외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가격의 수출은 수출업체의 채산성에 비춰 수출로 인한 경영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측 바이어들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고기 성수기에 필요한 오리고기 소요량을 3천톤 내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된 예상 소비량으로 감소요인을 일본경기 침체에 원인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로 수입이 중단됐던 홍콩의 경우 지난 9월21일부터 수입제한 조치가 풀려 이 지역의 가금육 수출이 재개되었으나 오리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NEWS

오리산업 발전 '앞으로'

- <축산신문> 유병길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규중)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김규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오리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극심한 불황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협회는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회원들의 권리수호와 이익대변은 물론 나아가

오리산업의 재건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농가 및 관련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과장 등 관계자와 농민단체협의회 최준구 회장, 전업농중앙연합회 엄성호 회장, 동물약품협회 신정재 회장, 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 본지 운봉중 회장, 농협 중앙회 조대영 상무등 관련단체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가평 '친환경농업' 서울 입성

- <농어민신문> 이장희기자

가평군의 친환경농업이 서울 강남 양재천에서 선을 보였다

가평군은 도심속 친환경농업을 재현, 안전농산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도시민과 학생의 농사체험을 통한 농촌사랑 일환으로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 '친환경 벼 재배 전시포'를 설치했다

500평 규모의 이 전시포에는 오리농법(300평), 우렁이농법(200평)등을 선보여 이를 직접 도시농민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에게는 농사체험을 통한 농심을

이끌어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이에 맞춰 강남구와 함께 지난 14일 이곳 양재천에서 양재수 군수와 권문용구청장을 비롯 주민, 학생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벼 재배 전시포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등 도시민이 직접 손 모내기에 나서고 오리방사 및 우렁이 종패 넣기 시연회 가평갯막걸리 시음회, 야생화 및 가평농산물 사진전등이 개최돼 농촌사랑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WWW.KBS NEWS NEWS

NEWS

배합사료값 지난주부터 평균 5.3~5.5% 추가 인상 - 10월말 이후에는 인하요인 발생

- <농수축산신문> 김선희기자

배합사료업계는 올해들어 이미 2차례 걸쳐 배합사료값을 평균 18%~20% 인상한데 이어 계속된 국제사료곡물값 급등으로 또 다시 지난주부터 평균 5.3~5.6%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농협중앙회 계통사료 공급물량도 이 전주부터 평균 5.4% 인상돼 공급된다

이번 인상으로 배합사료값은 올 들어 인상전인 지난해말 대비 평균 25% 오르

게 됐다. 그러나 올 8,9월 배합사료업체들이 사용할 사료곡물값이 가장 비싸 벌써부터 또 한차례 사료가격 조정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사료값 안정대책으로 부가세영세율적용 품목확대, 할당관세적용품목 확대, 사료원료구매자금 금리인하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 <농수축산신문> 최상희기자

농촌출신 대학생들에게 올 2학기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대출해준다.

농림부는 지난 18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자녀대학생에 대해 2학기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는 대학생은 대략 1만5000여명이며 지원되는 자금은 320억원규모이다.

등록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6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scholar.krf.or.kr)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 해당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대학 장학담당부

서에 제출하면 된다.

각 대학은 학생들이 신청한 신청서 및 약정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후 학자금 융자 추천조서 및 거래은행확인서 등을 첨부해 다음달 2일까지 재단에 일괄 제출해야 한다.

재단측은 신청자격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 8월말까지 각 농가에 학자금을 계좌입금하도록 했다.

김미숙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농업인과 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사료곡물값 ‘하락세’

- <농수축산신문>

미국 콘벨트지역 작황 호조, 파종량 증가와 해상운임비 하락으로 국제 사료 곡물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2004/2005년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2004/2005 세계사료곡물 생산은 9억 3184만톤으로 전망돼 전월예상치 9억3089만톤에 비해 0.1%인 100만톤이 늘었다.

재고량도 1억 549만톤으로 전월예상치 1억397만톤에 비해 1.5%인 150만톤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 2004/2005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4383만톤으로 전망돼 전월예상치 6억4258만톤에 비해 0.2% 증가됐고 재고량도 6886만톤으로 전월예상치에 비해 3.1% 증가됐다

대두 생산량도 2억2497만톤으로 전망돼 2003/2004년 1억8912만톤에 비해 19% 늘었고 재고량도 4669만톤으로 41.4% 증가됐다 대두박 생산량도 1억 4415만톤으로 전망돼 전년도 1억3387만톤에 비해 7.7% 증가됐고 재고량도 426만톤으로 전년대비 20.3% 늘었다

이에 따라 국제 사료곡물값은 17일 현재 C&F기준 톤당 미국산 옥수수값은 160.1달러로 전월평균치 183.2달러에 비해 23.1달러 하락했고 미산 대두박값도 373.2달러로 전월평균치 414.9달러에 비해 41.7달러 떨어졌다. 미산대두박도 달러로 전월평균치 389.3달러에 비해 43.5달러 떨어졌다.

농림부,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축소따른 대응책 마련

- <농수축산신문> 김선희기자

농림부는 2005년 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 축소전망에 따라 융자사업중 일부를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고 생계안정자금 등 국비성 사업의 농특회계 이관, 학교급식사업에 지방비 부담 등을 통해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 축발기금 운용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마사회 매출감소·농업인부채경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9억

6000만원이 줄어든 9281억원이다. 사업비 지출도 7142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융자사업중 일부를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운용규모 축소에 따른 재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간 전용수요를 억제키로 했다. 내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시범적으로 500억 원 수준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등 법정 지급자금은 농특회계로 이관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에 지방비를 25% 부담토록 했다.

만성적 부진사업인 용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수시선정 및 지정취소 제도를 도입해 집행률 제고를 도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3개월이내 사업 미착 수시 선정을 취소토록 한다.

또 사업성격이 유사한 축산물 가격·유통 및 수출입정보 등 조사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에서 일반은행으로 확대하고 기금 용자금리도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노수현 농림부 축산정책과 담당서기관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사업대상자에 따라 3.55%인 금리를 1.4%로 인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금 편성은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

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고품질 우수축산물 브랜드의 육성지원, 축산물 자율수급조절 기능강화 및 농가경영 안전망 확대,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사육기반 안전성 확보 추진에 집중됐다.

특히 방역우수 지자체 포상금 3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5억원, 도축검사보조원 20억원, 가축밀집사육지역 축산시설의 청정지역 이전을 지원하는 가축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 19억원, 원유집유체계 개편 지원 19억원, 유업체에 경영안정자금 350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지원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에 사료생산라인 구분을 위한 시설개보수비를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21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0 가축전염병 정보파악 ‘쉽게’

- 수검원,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 개발

축종별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통계와 지역별 현황을 보다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최근 가축전염병 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개발한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을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AIMS는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법정 전염병으로 진단한 경우 농가명, 주소, 축종, 품종, 사육두수, 시.도에서 실시간

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기간별, 지역별 질병발생정보 검색과 질병발생에 따른 현장역학조사결과 열람이 가능토록 돼 있어 방역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어민신문> 이진우기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기대

- <축산신문> 유병길기자

농림부는 지난 10일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소비자단체대표, 학계 전문가, 독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04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위원장 조옥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육성 '03년 추진내용 및 '04년 시행계획과 '05년 중점 추진방향 등을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05년부터 여성농업인정책업무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적극 대응하며 여성농업인의 복

지확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새로운 미션이 기대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를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맞춰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농촌정주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농업의 미래, 여성농업인의 미래를 위해 정책평가와 대안제시의 자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촌사랑 협력 조인식 개최

- <축산신문> 신정훈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지난 8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에서 경제 5단체와 '농촌사랑운동 협력조인식'을 가졌다.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농민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근 회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앞으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농협은 이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경제 5단체장, 농협중앙회

장, 농업인, 도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농협유통 광장에서 열린 농촌사랑선포식에 이은 실천행사라고 설명했다.

농협과 경제 5단체는 8일 현재 경제 5단체 산하 2백여개 기업체가 농촌마을과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농촌마을과 기업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촌사랑운동에 가속도가 붙어 올해 안에 1천여개 기업이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촌사랑운동은 농업인과 소비자, 각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사랑나눔 실천운동으

로 활력 있는 농촌을 가꾸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농도상생(農都相生)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이 외국농산물의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도·농간소득 격차의 확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농촌사랑운동은 우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도시민과 기업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를 대표해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우리는 기업과 농촌간 교류의 폭을 넓혀 기업의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을 농업분야에 활용토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며 우리농산물 소비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친환경농법을 위한 오리를 방사하고 농사체험을 갖기도 했다.

농림부, 축산물 안전성 대폭 강화한다… 농장 HACCP제도 2007년 시범사업추진

- <농수축산신문> 김선희기자

2007년 농장 HACCP제도 시범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배합사료 및 농장에서의 항생물질 사용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14일 식품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단체장이 참석한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축산국의 주요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축산물은 사육단계에서부터 동물약품 안전관리 및 잔류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배합사료 제조시 혼합가능한 항생제, 합성항균제 등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 이하로 감축키로 했다.

감축기준은 내성이 강한 항생제,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 등으로 현재 사료내 혼입가능한 동물의약품으로 EU는 4종, 일본은 23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의사 처방에 따른 동물약품 혼합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통해 농가의 동물약품 임의 혼합 배제를 강구키로 했다.

사료내 항생제, 아플라톡신, 농약, 중금속, 살모넬라 등 위해요소규제를 골자한 사료공장 HACCP 도입을 위한 수립계획도 오는 10월중 완료한다.

농장 HACCP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내년중에 축산물가 공처리법을 개정하고 2006년까지 적용 지침 마련, 2007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도축·가공단계

농림부는 소·돼지 도축장 검사관 증원 및 도축 공정 라인별 해체 검사 보조

NEWS

원 배치 등 도축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또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우수 도축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한다. 평가결과 상위업체는 0% 금리, 중위업체는 3%, 하위업체는 자금지원 배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차 오염방지를 위해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를 현재 30%에서 2013년에는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축장내 육가공장 설치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인증 및 정책자금 지원,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제 도입시 우대키로 했다.

▣ 유통·소비단계

농림부는 축산물 유통단계의 HACCP 운용 지침을 오는 12월까지 만들고 내년에는 보관·판매·집유 업소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2008년까지 전면실시에 대비한 제도를 완비키로 했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일이인기 의원등 10명 발의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림부는 또 안전관리에 시민들의 참

여를 대폭확대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상태 등 지도·단속 실시

지난 1월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각 시도는 2차로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도축장의 HACCP운용실태에 대해 점검중이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달중 시·도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중에 있다.

둔갑 가공·납품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농림부는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에도 공포키로 했다.

이번달부터 8월 15일까지는 도축장·가공장·판매장을 대상으로 닭고기 에 대해서도 원료관리 등 위생상태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 종오리 수입창구 오리협으로 일원화

- <농수축산신문> 장두향기자

종오리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한국오리협회 소속 부화장 및 종오리 사육부화장이 종오리 수입창구를 한국오리협회로 일원화 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국 오리 부화농가들은 국내 오리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과잉입식을 자제키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규중 한국오리협회장은 "3년 이상 지속된 과잉입식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병까지 겹쳐치면서 업계 스스로 종오리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원산오리축도 합의했고 화인코리아 경영진과도 교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종오리 업계는 수입공급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난립

할 경우 입식과잉과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오리업계의 이같은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같은 합의가 충분한 공감대에 제대로 이행될 경우 수입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입식을 자제하고 국내 수요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차후 종오리 등록제 및 쿼터제와 연동해 합리적인 오리시장 형성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닭·오리 사육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 <농수축산신문> 맹금호기자

경기도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오리 사육농가 등에 경영안정자금 122억6100만 원을 처리 용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농가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조치 등으로 가축사육을 일시 중단하였거나 가격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닭·오리 사육 농가 등(화성시 등 19개 시군 686농가, 5개 도계장, 12개가공장)으로서 용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가금인플루엔자 관련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오리 및 닭사육농가, 도축장, 가공장이며 용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시·군으로부터 농가별 지원 한도액을 배정받은 후 해당 시·군 및 축협에 용자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오리 및 닭사육 농가의 자금난이 해소돼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